

‘고창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 도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원본적 가치·당대 문화사적 배경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 인정받아

고창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이 전라북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이 지난 1일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2분과) 지정 검토 심의를 통해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 됐다.
동리 신재효(1812~1884)는 고창 출신으로, 고창에서 당대 명창들을 길러내고 후원한 것은 물론, 구전으로 전해오는 판소리를 집대성하고 개작한 사설본과 단가, 가사 등의 작품을 방대하게 남긴 문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

물이다.
특히 ‘변강쇠가’는 신재효의 기록으로만 존재하고, 최초로 여창 진재선을 발굴하는 등 19세기 판소리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창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은 신재효 당대 혹은 사후 얼마 안되는 시점인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엽에 필사됐다. 이는 고창지역 내에 전승된 원본에서 파생된 필사본들로서 판소리 향유를 위한 이본(異本)으로, 문헌학적으로 볼 때 원전(原典)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됐다.
‘고창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은 총 27점으로,

비당별로는 춘향가 5점, 심청가 3점, 토벌가 3점, 박타령 5점, 적벽가 4점, 변강쇠가 3점, 가사 4점이고, 계통별로는 신씨가장본 5점, 성두본 8점, 고수 외촌본 2점, 청계본 12점이다.
각각의 사설본은 개별적 특징을 가졌지만 신재효 판소리 문학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상호 보완 관계가 있어 최초 원본이 어떻게 필사되어 여러 전승본으로 파생됐는지를 신재효 사설본을 모두 갖춘 완질(完帙)인 청계본과 상호 검토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판소리의 역사를 알려주는 판소리 창본(唱本)은 매우 드물며,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고창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

창본이 없는 상황에서 ‘고창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고 평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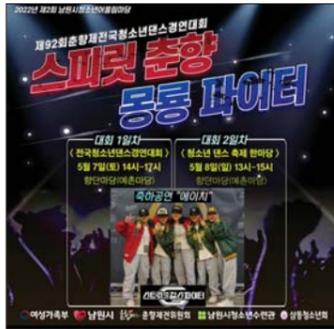
즉, 그 전후(前後) 판소리 사설의 동향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자 19세기 한글의 쓰임과 필사본의 유통, 당대의 문화사적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 인정받았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동양의 셰익스피어’ 동리 신재효선생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고, 판소리의 본향인 고창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당시의 조선팔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한 ‘동리정사(桐里精舍)’ 재현을 통해 현존하는 판소리 여섯바탕을 집대성한 신재효를 널리 알리고, 누구나 판소리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스피릿 춘향·몽룡 파이터’ 열린다

제92회 춘향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5월 7~8일 진행

남원시와 춘향제위원회가 주최하고 남원시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댄스 경연대회인 ‘스피릿 춘향·몽룡 파이터’가 오는 5월 7일과 8일 2일간 남원예천 향단마당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스피릿 춘향·몽룡 파이터 경연은 사랑에 대한 춘향과 몽룡의 정신을 담은 댄스 경연대회로 총상금 300만원이며, 대회는 온라인 예선을 거쳐 총 12팀이 7일에 열리는 본선에 진출할 예정으로 우승팀에게는 상금 15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대회 종료 후에는 수상의 영예를 차

지한 팀과 본선 진출 팀들의 앵콜 무대도 진행할 예정이며 경연 중에는 관람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즉석 댄스 배틀도 펼쳐진다.
특히,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블 채널 Mnet에서 지난 해 방송했던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 출연자인 아미존과 에이치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으며, 7일에는 아미존이 경연대회 특별심사와 함께 축하공연을, 8일에는 에이치가 특별공연을 준비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전국 9~24세 청소년 댄스팀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남원



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해 댄스동영상 파일과 함께 이메일(namwon3363@m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봄맞이 새 단장

실내조명 교체·포토존 설치·오목대 전통정원 정비 등 내·외부 정비

전주공예품전시관이 봄맞이 새 단장을 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시설 이용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실내 조명 교체, 포토존 설치, 오목대 전통정원 정비 등 내·외부 정비를 마쳤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체류시간이 긴 체험관은 방문객이 머무르는 동안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눈의 피로감을 낮추기 위해 기존 할로젠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했다. 외벽 및 내부 실내장식 공사도 진행돼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내부 미화를 위한 작업이 마무리됐다.
외부 마당 포토존은 임인년 흑호(黑虎)의 해인절을 감안, 한복입은 호랑이 캐릭터를 상징해 디자인했다.
오목대 전통정원은 조경작업과 영지 연못 점검, 다목적관 내부 대청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쉬 수 있는 형태로 조성했다.

판매관은 기존 입점 공예품 중 일부를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상품으로 교체해 매장 분위기 전환을 꾀했다.
새로 변경된 공예품은 공예가의 신상품이 포함돼 방문객의 소구력을 자극할 전망이다. 이번 봄맞이를 통해 입점한 공예품 711종 중 새롭게 91종을 교체했다.
김선재 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이전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그간 코로나로 피로감을 가졌던 시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공예품전시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onjucraft.or.kr) 또는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국립전주박물관, 박물관문화향연 ‘박물관 속 기타’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사장 김용삼)과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리는 박물관문화향연 ‘박물관 속 기타’를 오는 16일 오후 5시 옥외뜨락에서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국립전주박물관의 대표 유물, 전시를 함께 즐길 수 있게 구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디밴드 ‘안녕바다’의 감미로우면서 화려한 음악을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 모던록 밴드인 ‘안녕바다’는 보컬 나무, 베이스의 우명재, 기타의 우선재로 구성됐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별빛이 내린다’, ‘난 그대와 바다를 가르네’, ‘자장가’ 등을 선보인다.
또 여러 CF와 방송을 통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별빛이 내린다’는 보컬 나무가 고향인

전주의 별들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다.
이에 보컬 나무는 “2022년도 박물관문화향연 ‘박물관 속 기타’의 첫 번째 주자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오랜만에 고향의 많은 분들을 만나 뵙 수 있어 설렌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과 함께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 ‘이집트 -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에서 실제 미라를 비롯한 94점의 고대 이집트 문화재도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람료는 모두 무료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국립전주박물관의 싱그러운 초록빛깔 자연과 어우러진 음악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관람객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남원관광 SNS홍보 콘텐츠 공모

남원시관광협의회(회장 이장근)에서는 남원에서 누리는 소소한 일상, 매력찾기라는 주제로 2022 남원관광 SNS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는 유튜브 등에 올리는 동영상과 블로그에 올리는 이미지 등 2분야로, 공모전은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namwontour1@maver.com) 접수로 진행된다.
영상내용은 남원을 소재로 한 참신한 자연, 미담, 역사, 문화, 음식, 정책 등 알리고 싶은 남원의 매력 및 남원에서 누리며 즐기는 소소한 일상생활 등 남원을 소재로 한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혹은 팀(4인 제한)으로 참여 가능하고, 개인당(혹은 팀당) 2작품으로 출품은 제한, 참가자 1인(혹은 팀)당 중복 수상은 불가하다.
수상작은 개별 통보와 함께 7월 중 남원시관광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동영상 부문 대상(1명) 100만원, 최우수상(1명) 60만원, 우수상(1명) 40만원, 장려상(3명) 30만원이 수여되고, 블로그 부문 대상(1명) 30만원, 최우수상(1명) 20만원, 우수상(1명) 15만원, 장려상(2명)은 10만원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남원시관광협의회 홈페이지와 전화(063-633-5353)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